

A-2 치주수술후 치주포대의 비부착시 클로르헥시딘과 리스트린 구강 양치의 효과

임용수* · 신형식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1. 연구목적

치주포대는 환자에게 편안함을 제거하고, 치아의 탈감작화, 손상부위의 고정, 연조직과 이완된 치아의 부목, 수술부위의 보호와 피개를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술후 치주포대의 부착이 미생물의 군집을 억제하지 못하고, 치유에 장애를 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치주포대를 부착하지 않고 항 치태와 치은염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클로르헥시딘과 리스트린을 이용한 실험이 행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변형된 Widman 관막술후 치주포대를 부착하지 않고 클로르헥시딘과 리스트린 구강양치가 치태형성, 치은염증, 치주낭 깊이, 치은의 색조변화, 환자의 동통 및 미생물학적 변수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중등도의 치주염을 지닌 12명의 환자는 포대를 부착하지 않고 생리식염수로 2주간 구강 양치한 군, 클로르헥시딘으로 구강양치를 실시한군, 리스트린으로 구강양치를 실시한군으로 분류하였다.

2) 연구방법

수술 전단계 처치로 치석제거술과 치은연하소파술을 실시하였다.

(1) 치태지수(Silness & Loe)

(2) 치은지수(Loe & Silness)

(3) 치주낭 깊이

(4) 치은의 색조 변화

(5) 환자의 동통

(6) 미생물학적 검사-세균의 형태와 운동성에 주안점을 두어 구균, 비운동성 간균, 운동성 간균, 나선균으로 구분하여 위상차 현미경으로 1000배에서 관찰하였다.

3. 연구결과

- 1) 치태지수에서 클로르헥시딘과 리스트린으로 구강양치를 실시한 군은 생리식염수로 양치한 군에 비해 유의성있게 적은 치태를 형성하였다. ($P < 0.05$)
- 2) 치주낭 깊이에서 모든 실험군은 유의성있는 감소를 보였다. ($P < 0.05$)
- 3) 술후 치은색의 변화는 클로르헥시딘과 리스트린 구강양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있게 적은 변화를 보였다. ($P < 0.05$)
- 4) 미생물학적 변수에서 모든 실험군은 수술후 비운동성 세균의 증가를 보이다가 4주에 운동성 세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